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연구

-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 사업을 중심으로 -

Public Library-Led Community Engagement: An Analysis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 Initiative

이 연 옥 (Yeon-Ok Lee)*

박 미 진 (Mijin Park)**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선행연구 | 5. 논의 및 결론 |
| 3. 미국도서관협회의 LTC 사업 현황 | |

초 록

본 연구는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Library Transforming Communities)'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주도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미국도서관협회 LTC 홈페이지의 12개 도서관 사례와 관련 보고서를 수집하여 활용하였으며,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이메일 면담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에는 '지역사회 문제와 요구 파악', '지역사회의 대화 촉진 및 증대'와 '지역사회 공존장 기능',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와 협력 구축'이라는 네 가지 핵심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서 인식변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가동되었으며, 일부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도서관주도의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개선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촉진자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library-led community engagement activities. Specifically, it examines case studies from the 'Library Transforming Communities' (LTC) project, organized by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Data for the case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12 library case studies and reports available on the ALA's LTC website, along with interview data from librarian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four core areas of community engagement were identified: recognizing community problems and needs, facilitating and mediating community dialogue, fulfilling the library's role as a public forum, and building relationships and fostering collaboration within the community. In addition,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were implemented to enhance librarians' capacities and foster shifts in their perceptions. Furthermore, in some cases,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and programs were leveraged to address local issues effectively. As a result, library-led community engagement has positively contributed to community development and improved public perception of libraries. These findings confirm that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and librarians are evolving traditional information provision, expanding into facilitation roles within community problem-solving processes.

키워드: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요구, 도서관서비스, 공공도서관

Community Engagement, Community Development, Library Services, Community Needs, Public Libraries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accesspt@pusan.ac.kr / ISNI 0000 0004 6487 2027)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qaw09@pusan.ac.kr / ISNI 0000 0004 7244 5367)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25년 4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25년 5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5년 5월 1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2): 199-223, 2025. <http://dx.doi.org/10.4275/KSLIS.2025.59.2.199>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공공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개별 시민과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디지털 혁신으로 누구나 손쉽게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오늘날에는 ‘굳이 도서관을 방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문은 단순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 실제로 자료 대출 건수 및 도서관 방문자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 공공도서관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10년 이후 시민의 도서관 이용 감소와 이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800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폐쇄되었으며(Flood, 2019), 미국 역시 온라인 정보 접근의 용이함으로 인해 도서관 자료 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서관 방문 빈도가 줄어들면서 예산 축소 및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Coates, 2024). 이러한 상황에서 두 국가의 공공도서관계는 위기를 극복하고 도서관의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도서관 역할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은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Appleton, 2020). 미국은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혁신적 도서관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특히 미국도서관협회(ALA)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

(Library Transforming Communities: 이하 LTC)’ 사업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TC는 지역주민,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는 실천적 활동을 도서관이 주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도서관의 가치와 역동성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정책의 방향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은 공공도서관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으로 기능하는 것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어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은 지역사회 당면 문제에 대응하는 도서관 리빙랩 조성을 제안하며, 도서관이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도서관 모델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된다. 특히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개입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운영 전략과 그 과정에서 사서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에 참여한 공공도서관 사례를 분석하여,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 방식과 도서관 및 사서 역할과 관련된 주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LTC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이며, 현재까지 1,122 개 관 이상이 참여하여 다양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운영 방안 및 사서 역할 정립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는 도서관 역할 모델의 개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방법

미국 LTC 사업에 참여한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는 미국도서관협회 LTC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하였다. 현재 미국도서관협회는 1단계와 3단계 사업 종료 후 사업에 참여한 17개 도서관 사례를 성공사례로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17개 도서관 중에서 사례가 상세히 보고되어 도서관별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판단되는 12개 도서관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에 더해, LTC 참여도서관을 중심으로 담당 사서에게 이메일 질문지를 보내어 사업 운영과 관련한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메일 질문지 배포를 위해 12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서의 이메일 주소를 파악하였으며,

2024년 1월 16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질문지를 발송하여 3명의 사서로부터 응답받았다. 응답한 사서의 소속도서관은 로렐(Laurel) 공공도서관, 라이트 메모리얼(Wright Memorial) 도서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공공도서관이다.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사업 참여 배경,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파악 방법,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식, 주민 대화 운영 방식, 운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표 1〉 참고). 본 연구는 사업에 참여한 도서관 사례집과 보고서를 토대로 한 내용 분석과 이메일을 통해 확보된 사서의 응답을 종합하여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고찰하였다.

2. 선행연구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engagement)는 종종 협의, 참여, 협업,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의 용어와 관련되어 사용되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Brown & Keast, 2003; MLA, 2006; Moore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를 공공서비스 기관이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협력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사결정 및

〈표 1〉 면담자료 수집 현황과 특성

응답자	소속도서관	면담지 발송일	면담지 회신일	주요 질문
사서 A	Laurel Public Library	2024.01.16.	2024.01.17.	- 사업 참여 배경 - 지역사회 문제 파악 방법
사서 B	Wright Memorial Public Library	2024.01.16.	2024.01.27.	-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식 - 주민 대화 운영 방식
사서 C	Los Angeles Public Library	2024.01.16.	2024.02.09.	- 운영 프로그램

문제해결 과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Moore et al., 2016).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참여는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의 가치와 관심사,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Moore et al.(2016)은 지역사회 참여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의 우선순위를 공공서비스 설계에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유엔은 2005년 브리즈번 선언(The United Nations Brisbane Declaration)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을 제시하며, 정책 개발, 계획,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전반에 걸쳐 시민의 열망과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선언은 시민과 단체,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며, 충분한 정보와 숙의를 통해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UN, 2005).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기관이 지역의 요구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주민 만족도와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적극 장려되고 있다(Brown & Keast, 2003; Gilchrist, 2009; MLA, 2006; Moore et al., 2016).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다. Goulding(2009)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자원으로서 지역사회와 관계를 강화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사서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도서관 공간 제공, 도서관 운영에 자원봉사의 활용, 도서관의 의사결정에

주민참여 보장,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제한적인 인식을 한다고 비판하며, 도서관은 시민이 공공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중재적인 역할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Scott(2011) 또한 도서관이 지역사회를 활기차고 발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사서는 도서관 내부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도서관이 지역 문제해결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미국 도서관계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대규모 실천 프로젝트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LTC)'이 미국도서관협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LTC는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일환으로 단위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비롯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가 주로 공공도서관 역할 확대와 관련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노영희와 백민경(2021)은 지역사회 리빙랩으로서 도서관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원 가능성을 탐색하였고, 노영희와 노지윤(2020)은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도서관 역할과 기능을 조명하였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거점으로 간주하며 도서관의 실천 역량

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성우(2016)는 실행공동체 개념을 바탕으로 미국의 LTC 1단계에 참여한 5개 도서관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는 사서의 역량 강화 및 서비스 방향 설정을 위한 도서관 내부의 실행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사서와 지역주민 간의 실행공동체, 도서관의 중재하에 형성되는 지역사회 단위의 실행공동체라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연옥과 강영아(2023)는 국내 도서관이 운영한 공론장을 분석하여, 주민 대화와 토론이 지역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추동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정책의 주요 과제로도 부각되고 있다. 제3차 및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는 역동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며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그러나 이러한 정책 비전과는 달리 도서관 현장에서는 실제 지역사회 참여 사례가 드물며, 도서관 역할 확대와 관련된 실천 모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LTC)' 사업에 참여한 공공도서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변화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사서의 역할 수행방식에 대한 실증적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에 박성우(2016)에 의해 1단계 사례분석이 수행된 바 있으나, 이후 LTC는 대화 모델 개발, 사

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장되고 있어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참여라는 관점에서 1단계(2014-2015년) 5개 사례와 3단계(2020-2022년) 7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사회 개선 과정에서 드러나는 도서관 운영방식과 도서관 및 사서 역할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도서관의 정체성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3. 미국도서관협회의 LTC 사업 현황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 LTC)은 미국도서관협회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는 이니셔티브이다. 지역사회 참여를 기존의 아웃리치서비스나 지역사회 대상의 홍보와 다르게 도서관 고객, 주민, 파트너 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재구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LTC 사업에서는 단위 도서관이 지역사회 개선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담당 사서들을 교육한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1단계(2014~2015년), 2단계(2016~2018년), 3단계(2020~2022년)에 걸쳐 수행되었고, 현재 4단계(2022~2025년) 사업이 진행 중이다(〈표 2〉 참고).

〈표 2〉 LTC 사업의 주요 단계

단계	사업명	기간	내용	참여도서관 수
1	Turning Outward	2014-2015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열망과 요구 파악	10 개관
2	Models for Change	2016-2018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대화 모델 개발	-
3	Focus on Small & Rural Libraries	2020-2021	소규모 및 시골 지역 도서관에 적용	567 개관
4	Accessible Small and Rural Communities	2022-2025	장애인에 대한 적용	545 개관

단계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사업은 2014-2015년에 수행된 것으로 미국도서관협회가 빌과 멀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비영리기관인 하우드공공혁신연구소(Harwood Institute for Public Innovation)와 협력하여 운영하였다. 1단계는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리더이자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외부로의 전환(Turning Outward)’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외부로의 전환’은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내부에서 지역사회로 눈을 돌려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리더로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지역사회 리더로서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은 1)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2) 지역사회에 집중되도록 업무와 사고방식을 바꾸며, 3)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4) 도서관프로그램 계획과 수행에 지역사회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ALA et al., 2015).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서가 ‘주민 대화의 장’을 열어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의 열망과 바램을 공유하고, 주민의 공통된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ALA는 참여도서관을 선발하여 사서들을 교육하고, 지역사회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당시 100개의

도서관이 지원하였으며 이 중 10개 도서관이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다. 현재 LTC 홈페이지에 5개 도서관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2단계(2016-2018년)에는 현장 도서관의 참여 없이 ALA 단위에서 사업 운영을 위한 대화 모델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1단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와 요구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대화 모델을 개발하였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화의 성격, 실행 목표, 대화 진행 방식을 고려하여 ‘외부로의 전환형’, ‘대화 카페형’, ‘국가 이슈 포럼형’, ‘필수 파트너형’, ‘일상 민주주의 대화를 통한 변화’, ‘미래 탐색형’, ‘세계 카페형’이라는 7개 모델을 제시하였다. 대화 모델의 세부 특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들 7가지 대화 모델은 대화와 숙의를 강조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주민들이 지역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의하도록 운영한다(ALA, 2017).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문제 유형에 따라 도서관이 대화 모델을 선택하거나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단계(2020-2021년)는 2단계에서 개발된 대화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도서관과 시골 지역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567 개관을 모집하였다. 공공도서관 외에 학술도서관,

〈표 3〉 LTC 대화 모델

구분	대화 모델	특징
1	외부로의 전환형 (Turning Outward)	1단계에서 사용된 방식으로 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화 모델. 지역사회가 원하는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참여자들이 탐구함
2	대화 카페형 (Conversation Cafés)	카페에서의 대화처럼 특별한 형식 없이 소그룹을 이루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함. 사랑, 죽음 등의 주제를 탐구하거나 참가자들이 자신, 커뮤니티, 이슈에 대해 알아보거나 해결책을 찾을 때 적용. 참여 조건이나 특별한 의제가 없이도 모일 수 있고 스몰 토크에서 빅 토크나 중요 대화로 전환 가능. 참여자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주며, 단순히 듣기만 해도 좋음
3	국가 이슈 포럼형 (The National Issues Forum)	건강관리, 약물 남용, 이민, 치안, 에너지, 기후변화 등과 같은 공공의 문제나 국가 이슈에 대한 시민의 탐구와 지식확장을 장려하고, 의사결정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대화 모델. 의견이 다른 참여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통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함. 중립적 위치의 사회자가 진행하며 당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탐색하고 평가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문제와 쟁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함
4	필수 파트너형 (Essential Partners)	정치적 양극화, 종교 인종, 가치 등과 같이 찬반이 존재하거나 이해관계가 상반된 주제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 신뢰 회복을 이루고자 할 때 운영함. 갈등 해결이나 갈등으로 인해 위기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의 치유를 촉진하거나, 커뮤니티 내 그룹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 주로 대학도서관이 주도하는 대화에 적용할 것을 권함
5	일상 민주주의 대화를 통한 변화 (Everyday Democracy's Dialogue to Change)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한 공통의 해결책을 찾도록 장려. 포용적이고 상호존중적 대화를 통해 인종차별, 폭력,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의 지역사회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
6	미래 탐색형 (Future Search)	주택, 고용, 교통, 교육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활용. 전문가, 책임자, 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주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과제를 검증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운영
7	세계 카페형 (World Cafés)	대규모 참여자의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 한 테이블에 4~5명의 참가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그룹을 구성하여 대화를 나눈 뒤 각 그룹에서 대화한 주제, 통찰, 학습 내용을 전체 그룹에 보고하여 전체 참여자가 공유하도록 함. 지역의 중요 문제에 대규모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적용 가능

학교도서관이 참여하였다. LTC 홈페이지에 12개의 공공도서관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또한 ALA는 도서관 사서가 대화와 토론을 이끄는 데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담은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ALA, 2020).

4단계(2022-2025년)는 장애인에게 시설,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차

원에서 소규모 및 시골 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545 개관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ALA는 전국 단위의 많은 소규모 도서관이 지역사회 참여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한 개별 도서관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4. 분석 결과

4.1 LTC 사업 참여도서관 운영사례

4.1.1 1단계 사업 참여도서관 사례

1단계 사업(2014-2015년)에 선정된 10개 도서관 중에서 LTC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로 소개된 5개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 도서관은 미국의 대도시나 소도시에 위치하며 도서관 규모도 작은 도서관부터 대형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1) 콜럼버스 공공도서관(Columbus Public Library)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콜럼버스 공공도서관은 직원 6.4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도서관이다.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은 인근 도시 개발로 통근 이주자가 증가하면서, 기존 주민과 신이주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도서관은 LTC 1단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업 참여 후 도서관은 지역의 주요 현안과 주민이 바라는 지역사회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주민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초기에는 은퇴 교사 모임, 로터리클럽 등 접근이 용이한 그룹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상공회의소와 도시경제개발위원회 등 평소 접촉이 없던 단체들도 연계하여 대화에 참여시켰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병원, 은행, 초등학교, 도서관 등 주민 유동이 많은 장소에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을 적어 나무에 걸도록 하는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였다.

도서관은 이후 약 500여 건의 주민 제안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예컨대, 지역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철도역 인근 공원을 정비하고 벤치를 설치하였으며, 공공장소에 설치된 벤치를 지역 예술 단체와 협력해 예술작품으로 재구성하는 캠페인도 전개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 간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콜럼버스 도서관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단순한 자료 제공 기능을 넘어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었다(ALA, 2016).

(2) 하트포드 공공도서관(Hartford Public Library)

코네티컷주의 하트포드 공공도서관은 중앙도서관 1관과 9개의 분관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29명의 직원을 둔 대형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미국 내에서도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인 노스엔드(North End)를 중심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LTC 1단계 사업에 참여하였다. 도서관이 사업 초기에 수행한 주요 조치는 노스엔드 주민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서들은 주민들이 경찰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으며, 이는 곧 지역 치안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언론 매체에서는 해당 지역을 치안 부재 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음이 드러났

다. 도서관은 주민의 인식을 반영하여, 지역 안전과 주민 경찰 간의 관계 개선을 지역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교장, 경찰서장, 시청, 언론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후 도서관은 약 10여 명의 주민과 4-5명의 경찰관이 함께 참여하는 소그룹을 조직하여 3주간 지역문제,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 지역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대화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도서관은 지역 언론인과 협업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여 연재하였다. 또한 경찰이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초대하여 경찰 활동을 소개하는 공개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도서관이 주도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은 경찰과 주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고,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실천적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ALA, 2016).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도서관은 지역사회 중재자 및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3) 레드 훅 공공도서관(Red Hook Public Library)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소도시 레드 훅(Red Hook)에 위치한 도서관은 지역사회 조직인 'Red Hook Together'와의 소통을 계기로 LTC 1단계 사업에 참여하였다. 신임 관장은 지역 리더들로부터 지역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하였고, 도서관이 이에 적합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지역사회에 제안하였다. 도서관은 사업 초기 지역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과 당면한 문제를 직접 청취하였다. 그 결과, 마을에 유일하게 설치된 신호등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도서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시의원, 시 교통과 담당자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중재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신호등의 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은 청소년활동의 부족이라는 또 다른 지역문제에 주목하고, 인근 대학교, 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의 과학 및 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학생들이 프로그램 진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금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교육 자원을 연계하였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도서관은 주민과 지역 조직을 연결하고, 지역사회 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핵심 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도서관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ALA, 2016).

(4) 스포캔 카운티 도서관(Spokane County Library District)

워싱턴주에 위치한 스포캔 카운티 도서관은 10개의 분관과 약 13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공공도서관시스템이다. 이 도서관은 기존의 자료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중심에 둔 도서관 운영을 실현하고자 LTC 1단계 사업에 참여하였다. 참여 이후 각 분관의 사서들은 주민과의 대화를 조직하여 현안으로 고립, 실업, 치안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

젝트를 전개하였다. 디어 파크(Deer Park) 분관은 도서관 인근의 공원이 쓰레기로 가득한 채 방치되어 있다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카우트 단체와 협력하여 공원정화팀을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 인근 교회, 공원 주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공원은 '도서관공원(Library Park)'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성되었다. 메디컬 레이크(Medical Lake) 분관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와 도서관이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며 공동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였다. 또한 밸리(Valley) 분관은 청소년 고용과 진로 문제에 주목하고, 지역의 대안 고등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진로 탐색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스포캔 카운티 도서관은 각 지역 분관이 주민과의 대화 및 협력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제를 식별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실천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도록 전략적으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도서관의 직무 기준으로 제도화되었으며, 모든 직원이 지역사회 참여가 조직 차원에서 공식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되었다(ALA, 2016).

(5)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Los Angeles Public Library)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72개의 분관을 포함하는 대규모 도서관시스템으로 1,632명의 직원이 약 390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과 가장 빈곤한 계층을 동시에 대상으로 서비스하며, 이용자의 언어 및 인

종적 배경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서관은 LTC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주민의 65% 이상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약 20%가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 반누이즈(Van Nuys)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반누이즈 분관은 우선 주민들을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주요 문제, 개선 필요사항 등을 공유하였으며, 주민 대화는 도서관뿐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반누이즈 분관의 사서들은 보다 다양한 주민과의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장소로 직접 나가 1:1 대화를 시도하는 등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방식으로 대화 활동을 전개하였다(사서 C). 이러한 활동을 도서관이 주도하는 점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의아함이나 경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사서 C). 이러한 접촉을 통해 주민 대다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공통된 바람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참여를 도서관 운영의 전략적 목표로 공식화하였고, 이 모델이 전체 도서관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의 도서관 조직 내 확산을 위한 이 같은 조치는 LTC 참여가 단위 분관의 실천을 넘어 시스템 차원의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ALA, 2016).

4.1.2 3단계 사업 참여도서관 사례

3단계 사업(2020-2021년)은 2단계에 개발된

대화 모델을 적용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LTC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로 소개된 12개 도서관 중 관련 활동이 상세히 보고된 7개 도서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도서관은 소규모 도서관과 시골 지역의 도서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

(1) 로렐 공공도서관(Laurel Public Library)

델라웨어주에 위치한 로렐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도서관 역할을 확대하고자 LTC 3 단계 사업에 참여하였다. 도서관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인구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도서관의 개입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해당 지역은 델라웨어주 내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곳으로 전체 주민의 35.2%가 빈곤층에 해당하며, 초중등학생의 46% 이상이 학교에서 무료 급식이나 급식 지원을 받고 있었다. 사서들은 이 같은 지역적 상황에서 도서관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주민 대화를 통해서 도출된 요구와 우려 사항은 도서관 내 게시판에 공개되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다 심층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별도의 설문조사도 실시되었다. 또한 사서들은 지역 리더와 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화를 조직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로렐 도서관 사서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주민 대화를 조직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지도자와 도서관의 파트너 기관 대표들을 초대하여 별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지

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주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었다.” (사서 A)

이후 도서관은 총 35개의 지역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주민이 제안한 16개 요구 항목을 중심으로 ‘당신은 소중합니다(You’re Valued)’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도서관은 지역사회 내 지원 기관 정보, 연락처, 활용가능한 자원 등을 정리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관련 기관과 파트너 기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였다(사서 A).

아울러 사서들은 도서관 내부에 주민의 소망을 리본에 적어 게시할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주민 소망에는 ‘식량 부족 해소’, ‘도로포장 및 보수’, ‘공동체 모임의 필요성’, ‘포용적인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현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 요구에 부응하려는 도서관의 노력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가 있을 시에 도서관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사서 A). 당시 사서는 주민들이 도서관을 단순한 정보제공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풀 서비스 기관(full-service agency)’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ALA, 2021).

(2) 쿠스 베이 공공도서관(Coos Bay Public Library)

오리건주에 위치한 쿠스 베이 공공도서관은 11.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공공도서관이다. 오리건주는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의 비율이 높고, 주민의 16%가 최저 생계 수준 이하

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어 식량 불안정 문제가 지역 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쿠스 베이 도서관은 지역 식품협동조합과 협력하여 건강한 요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참여저조와 효과 미비로 인해 프로그램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LTC 3단계 사업에 참여하였다. 도서관은 우선 주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식량 관련 문제에 대한 주민의 경험과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민들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 명칭을 '식품 리터러시(food literacy)' 또는 '식량 안전(food security)'으로 재구성하여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개편 과정에서 도서관은 식료품점, 대학, 보건소 등의 기존 협력 기관뿐 아니라 식품협동조합, 영양사 등의 새로운 파트너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이들을 도서관에 초대하고, 주민 대화를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은 영양교육 자료 개발, 요리 영상 스트리밍 운영, 요리 수업 참여자 대상 식품 바우처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었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청소년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주민 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식품 구매의 물리적·경제적 장벽에 대한 주민 경험이 공유되었고, 이에 따라 식품협동조합에서는 주민들이 손쉽게 값싸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의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을 취하였다. 또한 도서관은 주민에게 영양소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요리 레시

피를 홈페이지에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였다.

쿠스 베이 도서관은 이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을 이끄는 촉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사서들은 주민 및 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지역 차원의 통찰을 확보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도서관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하였다(ALA, 2021).

(3) 아울스 헤드 마을 도서관(Owls Head Village Library)

메인주의 아울스 헤드 마을도서관은 단 1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공도서관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공항 확장 계획을 둘러싸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역 내 갈등과 불신이 깊은 상황이었다. 이에 도서관은 지역 의회, 공항 당국, 자문위원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공항 확장 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논의 주제가 지역 내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만큼 도서관은 이 대화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사회자를 초빙하였다. 이러한 중재적 접근은 마을 주민과 공항 관계자 간의 입장 공유를 촉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주민들은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면서 도서관이 단지 자료를 대출하는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지원

하는 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ALA, 2021). 이 사례는 소규모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인 소통 구조를 구축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라이트 메모리얼 도서관(Wright Memorial Library)

라이트 메모리얼 도서관은 오하이오주 오크우드(Oakwood)의 부유한 교외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공공도서관으로 총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18년 해당 지역사회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부상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역 시민단체가 도서관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도서관은 이후 시, 지역 학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인종차별 반대 연합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주민 대화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LTC에 참여한 사서는 당시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우리 도서관은 인종과 백인 특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설계하였다. 당시 이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였었고 우리 지역에서도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역의 Catholic Social Action이라는 단체가 우리 도서관에 먼저 접근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여 인종차별을 주제로 하는 주민 대화를 조직했는데 많은 수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 대화에서 Tim Wise의 ‘White Like Me’라는 영화를 상영한 후, 참가자들이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이 대화는 지역주민들이 인종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사서 B)

이후 도서관은 적극적인 주민 요구를 기초로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된 책과 영화에 대한 토론, 관련 학자를 초청한 특강, 소규모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후속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내 민감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화를 조성하고 주민 간 숙의와 이해를 촉진하는 공간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한편, 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새롭게 부상한 ‘지속가능성’ 이슈에 주목하여 환경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 대화 시리즈를 기획하였다. 그 일환으로 도서관은 토종 식물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도서를 활용하여 주민 대화를 조직하였고, 참가자들은 마당에 토종 식물을 심는 것이 생태계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학습하게 되었다. 이후 대화에 참여한 주민들은 자발적인 실천 그룹을 조직하였으며, 해당 그룹은 토종 식물을 잡초로 간주하여 마당에 심는 것을 금지하던 기존의 시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사서 B). 이는 공공도서관이 인종차별 및 생물 다양성 문제 등 지역사회에서 논쟁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공적 담론을 이끄는 중재자이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촉진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5) 팁 시티 공공도서관(Tipp City Public Library)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팁 시티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인종차별 문제를 주제로 주민 대화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제해결을 시도한 사례로 주목된다. 해당 지역은 과거 ‘일몰 도시(sundown town)’로 분류되었던 곳으로 일몰 이후 특정 인종의 외출이 제한되었던 역사적 배

경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의 잔재가 여전히 지역 문화와 인식 속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종차별과 관련된 주민 경험이 공유되며 지역사회 내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텃 시티 도서관은 LTC 기금을 활용하여 인종차별을 주제로 한 주민 대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우선 지역 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의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인종 문제를 다룬 주제 도서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성인 주민을 대상으로는 대학교수 2인을 초청하여 전문적 시각에서 대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도서관이 주관한 주민 대화의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지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계기를 제공했으며, 다양한 참가자들이 서로의 처지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과 속의가 형성되는 효과를 가져왔다(ALA, 2021).

(6) 몽투르 폴스 도서관(Montour Falls Library)

몽투르 폴스 도서관은 뉴욕주 스키타일러 카운티(Schuyler County)의 인구 1,700명 규모의 소도시에 위치한 마을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논쟁적 쟁점을 주제로 하는 시민 토론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회 정의'를 주제로 한 일련의 주민 대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프로그램은 반인종주의, 성차별 등 사회적 논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도서를 선정하여 구성되었으며, 도서관은 기존에 운영하던 북클럽을 활용해 대화를 진행하였다. 사서들은 선정된 도서 외에도 주제 관련 다큐멘

터리를 함께 안내하여 주민들의 사전 이해를 돕고 토론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논쟁적 성격이 강한 주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마련한 대화모임에서 참여 주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ALA, 2021). 이는 도서관이 지역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적 담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7) 휴잇 공공도서관(Hewitt Public Library)

휴잇 공공도서관은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주제로 한 주민 대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도서관은 지역의 정신건강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대화를 설계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자기관리를 위한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서 지원을 병행하였다. 키트에는 일기장, 감정 표현 도구, 컬러링 북, 원예용품 등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물품뿐 아니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목록과 이용 방법, 주요 정보자원을 정리한 자료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참여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회복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참여자 주민들은 도서관을 개인의 민감한 문제를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ALA, 2021).

이상 12개 사례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1단계에 참여한 콜럼버스, 스포캔 카운티, 하트포드, 레드 폭, 로스앤젤레스 도서관과 3단계에 참여한 로렐 도서관은 주민 요구와 지역사회 문제를

〈표 4〉 사례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단계	도서관명	대화 주제	대화 모델	협력 기관	활동 내용
1단계	콜럼버스	지역사회 문제 및 개선사항	외부로의 전환형 (Turning Outward)	은퇴 교사 그룹, 로터리클럽, 상공회의소, 도시경제개발위원회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 유대감 강화 프로젝트 운영
	하트포드	지역사회 문제 및 개선사항	외부로의 전환형	경찰서, 언론, 시, 교회, 학교	경찰-주민 간 대화를 조직해 지역 치안 불신 해소
	레드 후크	지역사회 문제 및 개선사항	외부로의 전환형	지역 리더 그룹, 시, 고등학교, 대학교	신호등 수리, 청소년 과학 프로그램 등 지역문제 해결 실천
	스포캔 카운티	지역사회 문제 및 개선사항	외부로의 전환형	교회, 스카우트 단체, 대안고등학교	환경 정화 실천 청소년 진로 교육
	로스앤젤레스	지역사회 문제 및 개선사항	외부로의 전환형	지역 파트너 기관	지역사회 문제 파악
3단계	로렐	지역사회 문제 및 개선사항	외부로의 전환형	지역 파트너 기관	지역사회 문제 파악 지역 지원 기관 정보 안내
	쿠스 베이	식생활과 건강	외부로의 전환형	영양사, 품협동조합 식품점, 보건소, 대학	영양교육, 식품 바우처 제공
	아울스 헤드	지역 내 공항 확장 계획	미래 탐색형 (Future Search)	지방 의회, 공항, 공항 개발 자문위원회	공항 확장 관련 문제에 대한 소통과 갈등 조정
	라이트 메모리얼	인종차별 문제 환경 지속가능성	필수 파트너형 (Essential Partners)	시민단체, 지역 의회, 학교	시민 실천 조직 구성 및 시 조례 개정
	팁 시티	인종차별 문화	필수 파트너형 (독서토론)	고등학교, 대학교	독서토론 및 전문가 초청, 대화를 통한 공론화
	몽투르 폴스	사회 정의	필수 파트너형 (독서회, 원 북 원 커뮤니티)	지역 역사 관련 협회	북클럽을 활용한 사회 정의의 이슈 공론화
	휴잇	정신건강	대화 카페형 (Conversation Cafés)	정신건강전문가, 시, 학교	정신건강 지원 대화 및 자기관리 키트 제공

파악하고 공유하는 일환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요구를 식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들 도서관은 주로 LTC 대화 모델 중에서도 '외부로의 전환형'에 입각해서 지역사회가 원하는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를 위한 조치를 대화와 숙의를 통해 도출해내는 방식을 활용했다. 반면에 3단계 참여 기관인 쿠스 베이, 아울스 헤드, 라이트 메모리얼, 팁 시티, 몽투르 폴스, 휴잇 도서관은 지역사회 전면에 부상된 주요 문제를 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 대화와 숙의를 이끌었다. 지역 내 인종차별 문제를 비롯하여, 식생활과 건강, 정신건강의 문제, 지역개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도서관이 개입함으로써 주민의 대화와 숙의를 활

성화하였다.

또한 3단계 참여한 도서관의 경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나 주제의 유형에 따라 '미래 탐색형', '필수 파트너형', '대화 카페형' 등 LTC가 제시한 대화 모델을 토대로 도서관의 독서회나 독서토론, 원 북 원 커뮤니티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대화방식의 다변화를 도모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도서관이 단순히 대화의 장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실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변화를 이끈 사례들도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하트포드, 레드 후크, 스포캔 카운티, 라이트 메모리얼 도서관의 경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에 더해, 주민 대화를 비롯한 지역의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파트너가 되어 협력하고 있으며 파트너의 대상은 지역사회 문제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4.2 사례 도서관 지역사회 참여의 특성

미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LTC 프로젝트에 참여한 12개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지역사회 문제와 요구 식별', '지역사회 대화 촉진과 중재', '지역사회 공론장의 기능 구현',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와 협력 구축', '사서 인식변화와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 실행',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지역사회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성과 창출과 확산'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4.2.1 지역사회 문제와 요구 식별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출발점으로 지역의 실질적 문제와 주민의 열망을 식별하는데 집중하였다. 사서들은 이를 위해 주민 간 대화를 조직하거나, 가가호호를 방문하였으며, 공공장소 내 의견 수렴, 설문조사, 언론보도 분석, 지역 통계자료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레드 폭, 로스엔젤레스, 로렐 도서관은 직접 주민과 접촉하거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콜럼버스 도서관은 주민 유동이 많은 공공장소에 주민의 바람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하트포드, 쿠스 베이 도서관 등은 지역의 인구, 산업, 소득, 직업 등을 포함한 지역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사서들은 지역사회 상황과 지역사회가 당면한 중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도서관의 사명을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연결 지음으로써 주민의 신뢰 기반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herman et al., 2023). 실제로 하트포드 도서관 사서는 "커뮤니티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그들의 열망과 우려를 이해할수록 도서관의 미션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ALA, 2016). 로렐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공간"이라는 주민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ALA, 2021). 이처럼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은 도서관주도의 지역사회 참여의 출발점으로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접점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4.2.2 지역사회 대화 촉진과 중재

사례 도서관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도서관이 일방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서가 지역사회 대화를 촉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이행한 점이 주요 특성으로 확인된다. 사서 주도로 대화를 소집하여, '살고 싶은 지역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이끌었다(ALA, 2016). 주민들 간에 지역의 주요 문제를 공유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특히 사서들은 주민 대화에서 다양한 입장과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상호 존중 속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팁 시티, 라이트 메모리얼, 아울스 도서관 등에서는 인종차별, 성차별, 불평등, 지역개발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대화에서 사서가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재하며 생산적인 논의로 이끄는 역할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ALA, 2021). 관련 대화를 주도한 도서관에서는 무엇보다 사서의 의사소통 기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대화는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도서관이 지역사회 변화의 촉매자로 작용하는 기반이 되었다.

4.2.3 지역사회 공론장의 기능 구현

LTC 사업은 지역의 주요 쟁점과 문제에 대한 주민의 대화와 숙의를 강조하였다. 사례 도서관은 주민 대화의 장을 운영함으로써 의견 공유와 토론 등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지역사회의 공론장으로 기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아울스 헤드 도서관은 공항 확장 계획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상황에서 주민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대화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지원하여 합의 도출에 기여함으로써 도서관이 지역사회 내 공적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라이트 메모리얼, 팁시티 도서관, 몽투르 폴스 도서관 역시 인종차별, 사회 정의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 표현과 상호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숙의와 이해를 활성화하였다. 이처럼 도서관은 주민들이 민감한 사회문제를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4.2.4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와 협력 구축

도서관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였다. 주민과의 관계 형성 뿐 아니라 지역 기관, 시민단체, 민간 조직 등과의 접촉과 연계가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개선 활동이 전개되었다. 앞서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참여도서관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다. 예컨대, 스포캔 카운티 도서관은 공원 환경 정비 프로젝트에서 지역 스카우트 단체, 교회, 인근 주민들을 연계하여 주민 주도의 실천을 유도하였다. 이 도서관 사서들은 주민들에게 공원정화에 필요한 기금을 모집하여, 조경사를 고용할 수 있었지만,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주민과 단체와 연계하고 협력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였다(ALA, 2016). 쿠스 베이 도서관은 식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점, 대학, 보건소, 식품협동조합, 영양사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기존의 파트너십을 넘어 새로운 협력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다양한 주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의 연계 역량을 보여준다. 더불어 지역사회 단체 관계자들도 도서관과의 협력 경험을 통해 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Flinner et al., 2016).

4.2.5 사서 인식변화와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는 사서의 인식변화와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동반되었다. 미국도서관협회는 LTC

사업 참여 사서를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대화 모델을 교육하고 주민 대화를 설계하고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일부 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 대상의 교육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사고 전환을 유도하였다(콜럼버스, 스포칸 카운티, 로스엔젤레스 도서관). 이를 통해 사서들은 주민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기보다는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스포칸 카운티, 레드 록 도서관). 도서관 운영의 중심을 자료와 공간 중심에서 지역사회 요구로 전환하였고,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제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로스엔젤레스, 팁 시티, 휴잇 도서관). 실제로 사서들은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참여가 도서관 계획의 기본 방향이 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ALA, 2021).

4.2.6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일부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서 주민의 선택과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였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책, 영상, 기사, 관련 기관 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론회, 특강, 워크숍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예를 들면 몽투르 폴스 도서관과 라이트 메모리얼 도서관은 인종차별 관련 도서나 영상 콘텐츠를 소개하고 이를 주제로 한 주민 대화와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로렐 도서관은 주민의 요구 유형별로 연계가능한 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쿠스 베이 도서관은 식품과 영양소에 관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휴잇 공공도서관은 정신건강 관련 지원 기관과 정보를 안내하였다. 이러한 정보서비스는 주민의 문제 인식을 비롯하여 숙의와 결정, 실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4.2.7 지역사회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성과 도출

사례 도서관들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사서들은 “처음 이 사업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본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영향력이 컸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Sherman et al., 2023, 24-28). 이 같은 평가는 지역주민의 경험과 목소리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인종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한 도서관에서는 ‘대화가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말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인종차별에 대한 주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 인종적 편견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보다 강해졌다’며 도서관이 이러한 장을 마련해줬다는 것에 주민들이 감사해한다고 하였다(휴잇, 몽투르 폴스 도서관). 사서들은 주민들이 정신건강 문제나 인종차별 문제 등 ‘논란이 되거나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휴잇, 몽투르 폴스 도서관). 아울러 주민들이 항상 사서에게 감사를 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Sherman et al., 2023, 24-28).

이에 더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점도 성과로 나타났다. 참여

주민들은 지역 이슈에 기반한 모임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콜럼버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주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였고, 라이트 메모리얼 도서관은 토종 식물 식재 실천 모임이 조직되어 지역사회 요구를 지원하는 데 참여하였다. 주민들은 지역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실제 지역사회가 개선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이 강화되었다.

또한 주민과 파트너 기관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도 성과로 나타난다. 사서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회 문제가 있을 시에 도서관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평가하였다(콜럼버스, 스포캔 카운티, 로렐, 아울스 헤드 도서관). 도서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관이나 단체 종사자들 또한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도서관과 협력하는 것의 의미와 도서관의 중요성을 보다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LTC 참여도서관에 대한 미디어의 인식은 '위기에 직면한 공공도서관'에서 '역동적인 서비스제공자'로 전환되었다(Flinner et al., 2016). 참여 사서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서비스 정책 반영 및 실천 의지가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지금까지의 지역사회 참여도서관 사례 분석과 참여 활동에서 도출된 주요 특징을 종합하여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5>와 같은 단계별 흐름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각 사례에서 나타난 활동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

회 참여를 실행하는 공통된 절차와 특징을 구조화한 것이다.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사업은 국가 차원의 ALA와 개별 단위 도서관 차원에서 설계와 준비에서부터, 지역사회 요구의 파악, 지역사회 대화 설계와 운영, 지역사회 변화 추동과 실행, 주요 성과 공유와 확산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과 연계,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 활용, 사서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이 실행되었다는 점이 다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미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Library Transforming Communities: LTC)' 프로젝트에 참여한 도서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과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지역사회 문제와 요구 식별'과 '주민 대화 촉진과 중재',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의 기능',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와 협력 구축'이라는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또한 사서 인식변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었으며, 일부 도서관은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 내에서 도서관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표 5〉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 과정과 특징

	과정	내용	주체	특징
1	지역사회 참여 사업 기획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사서 인식개선 - 주민 대화 모델 개발 및 보급 - 교육을 통한 사서 역량 개발 - 참여도서관 컨설팅 - 예산 지원 	ALA/ 개별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문제와 요구 식별 - 지역사회 대화 촉진과 중재 - 지역사회 공론장의 기능 구현 -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와 협력 구축 - 사서 인식변화와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 -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 지역사회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성과 도출
2	지역사회 요구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의 대화(공공장소 의견수렴, 가가호호 방문 등) - 설문조사, 언론조사, 통계조사 - 협력단체를 통한 지역문제 파악 	개별 도서관	
3	지역사회 대화 설계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요구 기반 핵심 의제 설정 - 다양한 주체 간 대화의 장 개설 - 주제별, 그룹별 대화 모델 적용 - 참여자 간 자유로운 대화와 숙의 - 대화 주제에 관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 사서의 대화 촉진 및 중재 역할 	개별 도서관	
4	지역사회 변화 추동과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단체 간 협력 방안 모색 - 주민참여 독려 및 주민 조직화 (실천 프로젝트, 캠페인 등) 	개별 도서관	
5	성과 공유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사례 공유 및 확산(언론보도, 주민 증언 등) - 도서관 서비스 정책 반영 시도 	ALA/ 개별 도서관	

이 사례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 정보제공자를 넘어 지역사회 변화의 중재자이자 촉진자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서는 주민 간 대화를 조직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며, 지역 변화의 실천적 주체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도서관이 시민참여를 중재해야 한다고 본 Goulding (2009)의 입장, 그리고 사서가 도서관 바깥의 지역사회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Scott(2011)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아울러 도

서관을 리빙랩이나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간주하려는 국내의 연구와도 점점을 갖는다(노영희, 노지윤, 2020; 노영희, 백민경, 2021).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가 제시한 사서와 도서관의 역할 개념이 실제 LTC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LTC 사례는 도서관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주민 대화’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참여도서관들은 지역문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기보다 주민과의 대화와

숙의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도출해갔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참여에서 주민의 숙의와 결정 참여가 핵심적이라는 Moore et al.(2016)의 관점, 그리고 도서관 공론장이 주민의 의사결정과 참여를 촉진한다고 밝힌 이연옥과 강영아(2023)의 분석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주민 대화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참여와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과정으로 사서가 대화의 진행자만이 아니라 대화의 촉진자이자 중재자로 기능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사회 변화의 촉매자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박성우(2016)가 제시한 실행공동체 개념과도 연계된다. 그는 LTC 1단계 사례분석을 통해 사서 실행공동체, 사서 주민 간의 실행공동체, 도서관의 중재를 통한 지역 단위 실행공동체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은 도서관이 단지 대화를 조직하는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수준의 실천 주체들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과 상호보완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LTC 사례는 도서관이 사회적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례 분석을 통해 도서관은 주민들이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환경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역개발, 인종차별, 사회 정의와 같은 민감하고 논쟁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중립적이고 안전한 토론의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주민의 숙의, 토론 및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공론장 기능이 제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LTC 사업에서는 주민 대화 촉진을 위해 미국도서관협회가 개발한 대화 모델을 바탕으로, 사서들이 주민 대화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빈곤, 식량, 인종차별, 건강, 지역개발 등 주제나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도서관의 개입 전략과 대화방식을 달리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주민 요구 유형별 대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ALA는 주민 대화 촉진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를 제공하여 대화에 대한 사서의 경청과 공감, 중재를 지원하는 등 사서의 대화 촉진자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ALA, 2020). 이는 도서관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참여 전략 수립 시 사서의 대화 촉진자 역할을 중심으로, 사서의 대화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사서의 전문 역량 개발 및 사서 양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참여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서가 지역의 요구와 문제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도서관이 지역사회 개발과 참여를 주도하는 리더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서가 대화 촉진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전문성 강화는 사서 양성과정에서도 중요한 과

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는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과도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논의하며 해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자료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서비스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LTC 사례에서도 일부 도서관이 지역의 주요 사안과 관련된 정보제공, 관련 기관 안내, 특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의 숙의와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는 정보제공이 대화와 논의의 장인 공론장에서 주민의 사안 이해를 촉진하고, 토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기존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이연옥, 강영아, 2023; Moore et al., 2016).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LTC 사례의 성공은 미국도서관협회의 조직적 리더십과 지속적인 재정 및 교육 지원에 기반하고 있었다. 참여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대화 모델의 개발 및 배포, 성공사례 공유와 성과 확산, 사서 대상 워크숍과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단위 도서관의 지역사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는 도서관의 혁신적 서비스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정책적 리더십과 구조적 지원 체계가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다만, 도서관의 지역사회 활동이 사서의 기존 업무를 넘어서는 추가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에 현실적 어

려움이 존재하며, ALA의 기금 지원이 일회성 사업에 그칠 위험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참여가 도서관의 고유한 기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예산확보와 인력 배치 등의 구조적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참여사업은 국가적 단위의 사업 설계와 지원이 요구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한국도서관협회와 같은 상위 기관의 역할 설계와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참여를 실행하는 공통된 절차와 특징을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참여형 도서관 사업을 설계할 때 모델 및 정책적 틀로 활용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별로 어떤 핵심 활동이 필요한지, 각 활동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모델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지원 체계의 설계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LTC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참여 전략과 사서의 역할 정립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제시한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역동적인 서비스'라는 정책적 비전과도 연계되며, 도서관이 지역사회 개입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노영희, 노지윤 (2020).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89-113. <http://10.14699/kbiblia.2020.31.1.089>
- 노영희, 백민경 (2021).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도서관 리빙랩에 관한 지역 기반 방향성 도출 연구: 충주시의 지역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2), 5-24. <http://10.14699/kbiblia.2021.32.2.005>
-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 박성우 (2016). 실행공동체 사례연구를 통한 공공도서관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339-358. <http://10.16981/kliss.47.4.201612.339>
- 이연옥, 강영아 (2023).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139-160.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139>
- ALA (2016). Case studies. Available: <http://www.ala.org/tools/librariestransform/libraries-transforming-communities/case-studies>
- ALA (2017). Dialogue & deliberation resources for libraries. Available: <http://www.ala.org/tools/librariestransform/libraries-transforming-communities/dialogue-deliberation-resources>
- ALA (2020). Leading conversations in small and rural libraries: facilitation guide. Available: https://www.ala.org/sites/default/files/tools/content/PPO_LTC_Fac_Guide%20-%20revised%20v3_0.pdf
- ALA (2021). 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 focus on small and rural libraries case studies. Available: <http://www.ala.org/tools/librariestransform/libraries-transforming-communities/focusgrants/casestudies>
- ALA, PLA & Harwood (2015). Communities have challenges. Libraries can help. Available: https://www.ala.org/sites/default/files/tools/content/LTCGettingStarted_DigitalWorkbook_final010915.pdf
- Appleton, L. (2020). The 21st Century Public Library in England and Scotland: Epistemic, Community and Political Roles in the Public Sphere. Doctoral dissertation, Edinburgh Napier University, United Kingdom.
- Brown, K. & Keast, R. (2003). Citizen-government engagement: community connection through networked arrangements. As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5(1), 107-131.

- <https://doi.org/10.1080/02598272.2003.10800411>
- Coates, T. (2024). The quiet crisis facing U.S. public libraries: the latest IMLS data show library visits are half what they were a decade ago—where is the response from library leaders? *Publishers Weekly*, June 28, 2024. Available: <https://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industry-news/libraries/article/95383-the-quiet-crisis-facing-u-s-public-libraries.html>
- Flinner, K., Roberts, S. J., Norlander, R. J., Beharry, S., & Fraser, J. (2016). Final Evaluation Report: 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New Knowledge Publication #NPO.074.175.06). Available: https://www.ala.org/sites/default/files/tools/content/Summative%20Report_ALA%20LTC_2016%2001%2018_0.pdf
- Flood, A. (2019). Britain has closed almost 800 libraries since 2010, figures show. *The Guardian*. Available: <https://amp.theguardian.com/books/2019/dec/06/britain-has-closed-almost-800-libraries-since-2010-figures-show>
- Gilchrist, A. (2009). *The Well-Connected Community: A Networking Approach to Community Development*. (2nd ed.). Bristol: Policy Press.
- Goulding, A. (2009). Engaging with community engagement: public libraries and citizen involvement. *New Library World*, 110(1/2), 37-51.
- MLA(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2006). *Community Engagement in Public Libraries: A Report on Current Practice and Future Developments*. London: Victoria House Southampton Row. Available: https://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ukgwa/20080820084024/http://www.mla.gov.uk/resources/assets//C/community_engagement_report_9654.pdf
- Moore, T., McDonald, M., McHugh-Dillon, H., & West, S. (2016). Community engagement: a key strategy for improving outcomes for Australian families. *Child Family Community Australia Paper*, 39. Available: <https://aifs.gov.au/cfca/sites/default/files/cfca39-community-engagement.pdf>
- Scott, R. (2011). Strategies that public libraries use to build communities. *Public Library Quarterly*, 30, 307-346.
- Sherman, M., Bowen, E., Norlander, R. J., & Brucker, J. L. (2023). *7 Steps to Effective Community Engagement: Evidence from Small and Rural Libraries*(Knology Publication # NPO.074.709.01). Available: https://www.ala.org/sites/default/files/tools/content/FINAL%20230419-ppo-7-steps-to-effective-community-management_0.pdf
- UN (2005). *The United Nations Brisbane Declaration on Community Engagement*.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Lee, Yeon Ok & Kang, Young Ah (2023). A study on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as community public sphe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1), 139-160.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139>
-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24). *The 4th Comprehensive Plan for Library Development (2024-2028)*.
- Noh, Younghee & Baek, Min-Kyung (2021). A study on deriving a regional-based direction for a library living lab to solve local community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2), 5-24. <http://10.14699/kbiblia.2021.32.2.005>
- Noh, Younghee & Ro, Ji-Yoon (2020). A study on the role of library in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 89-113. <http://10.14699/kbiblia.2020.31.1.089>
- Park, Seong-Woo (2016). A study on the changing role of public libraries by the case studies of community of pract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47(4), 339-358. DOI: 10.16981/kliss.47.4.201612.33
-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 Information Policy of Korea (2019). *The 3rd Comprehensive Plan for Library Development(2019-2023)*.

